

## 리서치팀

☎ 82-2-3774-0451

## 1. 통화전망

## (1) 달러/원(선물)

예상 레인지: 1,098원~1,118원

방향성: 약보합

금주 달러/원은 약달러와 위험선호 반영하여 1100원 하방 테스트 예상. 미국의 재정부양책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랠리를 펼쳤던 달러화 강세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 미국의 초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경상수지 적자가 늘어나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달러화 약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확대. 이에 더해 미국 의회에서 부양책 도입이 신속히 이뤄지기 시작하면서 주식이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리스크온 모드가 회복된 점도 달러/원 하락에 일조. 다만 적극적이지 않은 외국인 주식 매수, 꾸준한 개인들의 해외 주식 매수 등에 낙폭 제한될 것으로 보임

## (2) 유로/달러(선물)

예상 레인지: 1.2100~1.2400USD

방향성: 강보합

금주 유로/달러는 민주당이 목표한 1조 9천억달러 규모의 부양책 통과 예상으로 인한 단기적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위험선호심리를 자극하며 글로벌 달러 약세에 연동해 상승 압력이 우위를 보일 것으로 전망. 다만 유로존에서는 백신 공급 지연이 봉쇄연장과 함께 경제 전망도 악화시키고 있는 점은 유로화 상단을 제한할 것을 보임. 금주 유로존의 작년 4분기 GDP 성장률과 ECB통화정책 의사록, 제조업 PMI지수 등이 발표될 예정. 특히, ECB가 유로화 강세 우려에 대해 언급해 온 만큼 ECB가 지난 회의에서 유로화 강세와 관련해 추가 완화책 등을 논의했다면 유로화는 상단이 제한될 수 있을 것.

## (3) 엔/달러(선물)

예상 레인지: 0.95300~0.97500USD

방향성: 약보합

금주 엔/달러는 2월 17일 발표 예정인 FOMC회의 의사록과 미국 부양책 기대감을 소화한 미국채 금리와 연동해 약보합권 등락을 전망. 금주 17일에는 Fed의 지난 달 FOMC의사록이 공개될 예정. 연준은 1월 회의에서 정책에 별다른 변화를 주지 않았고, 예상보다 이른 자산매입 축소 우려에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음. 연준이 1월 회의에서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나눴을 지 시장은 주목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대체로 파월의 발언과 같다면 시장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큼. 다만 부양책 지난 주 10년물 국채금리가 작년 3월 이후 처음으로 1.2%를 넘어섰음. 연준이 물가 2%를 넘어서도 이를 용인할 것이라는 시각이 강해 미국채 금리 상승세 이어갈 경우 엔화는 이와 연동해 약세 폭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 지수전망

### (1) S&P500(선물)

예상 레인지: 3,650~3,900 pt

방향성: 강보합

금주 뉴욕증시는 FOMC의사록과 소매판매 등 주요지표를 주시하면서 강보합권 등락을 전망. 지난 주 조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1조 9천억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과 양호한 기업 실적, 코로나19 확산세 둔화 등이 증시에 강한 동력을 제공했음. 특별한 악재가 없는 만큼 강세 추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여전히 지배적이지만 장기간 상승에 따른 일정수준의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이 큰 상황. 1월 소매판매 등 실물경제 상황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경제지표에 대한 민감도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1월 FOMC의사록에서도 기대보다 덜 완화적인 견해가 나온다면 시장이 민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월마트 등 대표 유통업체 실적과 전망은 미국 경제의 기동인 소비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3. 상품전망

### (1) WTI(선물)

예상 레인지: 54~63.00 USD

방향성: 강보합

금주 WTI(국제유가)는 사우디 중심의 OPEC+ 감산에 따른 공급 통제와 미국 원유 재고 감소세 지속으로 향후 수급이 타이트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 우위를 전망. OPEC에 따르면 2020년 5월 이후 OPEC+감산 이행률은 99%라고 알려짐. 반면 2월 5일 주간기준 미국 전체 원유재고는 4.69억 배럴로 3주 연속 감소했으며, 미국 쿠싱 지역 원유 재고도 5주연속 감소. 유가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WTI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도 증가하는 중. 이에 더해 사우디를 겨냥한 예맨 반군의 계속되는 공격 시도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무부가 이들을 테러 단체 지정에서 해제. 이에 따른 미국과 사우디 간 동맹 약화 우려도 유가 강세 요인. 다만 국제원유 수요 불확실성이 여전한 점이 유가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임.

### (2) 골드/실버(선물)

예상 레인지: 1,830~2,100USD

예상 레인지: 24.00~29.00USD

방향성: 강보합

금주 금 가격은 부양책 기대감으로 인한 글로벌 달러 약세 우위 속 달러화로 거래되는 금 가격 특징에 따라 상승 우위를 전망. 다만 글로벌 주요국의 백신 보급 확산으로 인한 경기 회복 기대감은 골드 가격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임. 영국은 2월 15일까지 인구 1500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계획한 가운데 목표달성 여부를 공개. 일본과 뉴질랜드는 금주부터 백신 접종 예정. 주요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달러화 수요를 완화하고 미국 부양책 개시가 단기적으로 달러화를 끌어내릴 수 있는 점이 금 가격 강세를 지지할 것으로 보임.

본 자료는 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당사 고객들에게 배포되는 자료로서 본 조사자료의 내용은 당사의 리서치센터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를 하여야 하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파생상품은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인해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손실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www.futures.co.kr](http://www.futures.co.kr)) 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